

MARCH 2022 VOL.641

# hyangjang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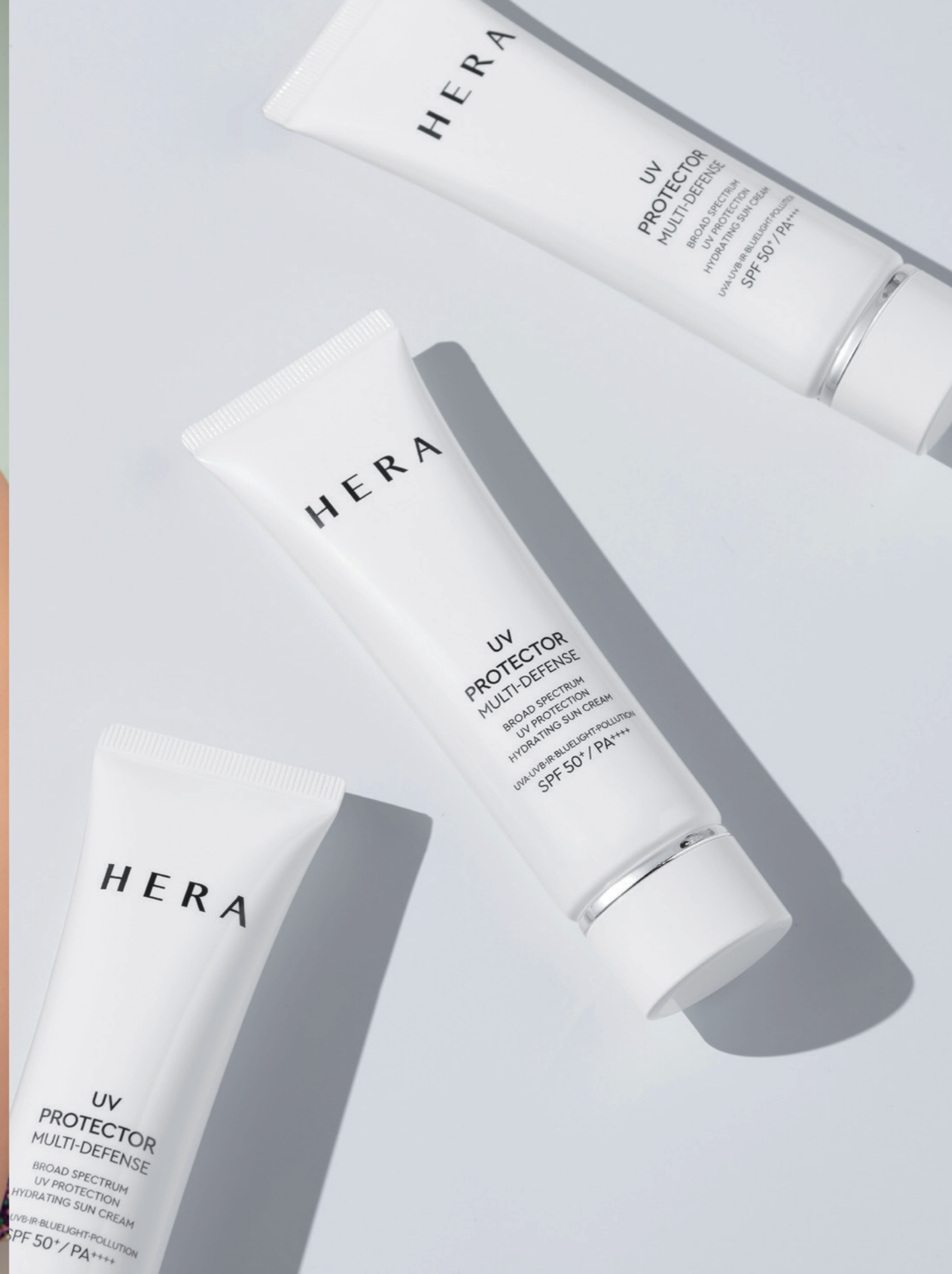
**PRODUCT** 꽃처럼 아름다운 피부를 위하여

**SPECIAL** 봄 햇살 다스리는 법

**MAKEUP PLAY** 돌아온 Y2K 세기말 메이크업

AMOREPACIFIC

- 02 NEWS  
3월의 가장 핫한 뉴스
- 06 NEWS-TREND  
글로벌
- 08 MAKEUP  
돌아온 Y2K 세기말 메이크업
- 14 SPECIAL  
봄 햇살 다스리는 법
- 22 PRODUCT  
꽃처럼 아름다운 피부를 위하여
- 28 MAKEUP PLAY  
헤라의 새로운 립 프로젝트
- 32 FOCUS  
설화수
- 34 FOCUS  
헤라
- 36 FOCUS  
바이탈뷰티
- 38 THIS MONTH'S PICK  
헤라
- 42 INGREDIENT  
비타민 C
- 44 ICON  
3월의 인테리어
- 48 PLACE  
사랑하는 이와 함께
- 50 ISSUE  
아이크림의 진실과 거짓
- 52 INTERVIEW  
아름다움을 나누는 엄마와 딸
- 54 REVIEW  
간간한 품평단의 품평 리뷰
- 56 EDITOR'S PICK  
3월의 강추템



발행일 2022년 3월 1일

발행 통권 641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방판 콘텐츠&서비스팀

인쇄 (주)태신인팩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이성진, 이미경

디자인 Pentagram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5년간 641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2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향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 HYANGJANG JOURNAL

Low-rise : 높아졌던 허리선이 골반까지 내려온 지금, 향수와 낭만을 불러일으키는 2000년대 로라이즈 스타일이 가장

힙한 패션으로 떠올랐다.

editor LEE MI KYUNG

2022년 봄, 막패션계는 어느 때보다 고무적이고 활기차다. 심플하고 편안한 룩과 과감하고 화려한 스타일이 동시에 주목받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패션과 포도제닉한 디자인이 동시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패션 트렌드는 세기말 스타일의 Y2K 패션이라는 강력한 키워드로 귀결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해마다 패션 트렌드에 빠지지 않는 레트로지만, 이번 시즌처럼 A부터 Z까지 거의 모든 트렌드 관련 키워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주 오랜만이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세를 불린 Y2K 패션은 올봄 절정에 이를 듯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애써 눌러온 우리 마음속 화려한 패션에 대한 욕구가 그야말로 폭발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2000년대 패션의 대표 격인 로라이즈 스타일이 다시 등장하면서 높아졌던 허리선이 어느새 골반까지 내려왔다. 허리를 드러내는 로라이즈 팬츠나 스커트를 거의 모든 디자이너가 선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 때문일까 2002년에 개봉한 영화 <핫 칩> 속 크롭트 톱과 로라이즈 진 팬츠 차림의 소녀들을 떠올리게 하는 룩이 런웨이에 물결을 이뤘다.

로라이즈는 올해 블루마린, 돌체 앤 가바나처럼 Y2K 패션을 재현한 컬렉션부터 조금 더 미니멀하게 정제된 미우미우 컬렉션까지 그 중심에 자리 잡으며 가장 힙한 스타일로 떠올랐다. N°21, 베르사체, 미우미우 컬렉션에서 보듯 허리선이 낮아진 만큼 극한으로 짧아진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가 있는가 하면 스포트맥스, 샤넬, 보스, MSGM의 컬렉션처럼 한껏 길어진 롱스커트나 팬츠 등도 볼 수 있다. 골반까지 내려온 허리선과 함께이너웨어를 레이어드한 패션 역시 눈에 띈다. 허리 라인이 내려가며 드러난 모델들의 납작하다 못해 앙상한 복부를 보며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재킷을 입거나 상의 길이를 적당히 조절해도 좋고, 배꼽과 골반 사이에 걸치는 세미 로라이즈도 도전해볼 만하니 말이다. 만약 복고 패션을 제대로 즐길 요량이라면 양 갈래로 땀은 헤어스타일과 컬러 선글라스, 두건 등을 활용해 대놓고 촌스러워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 피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하되 하이라이터를 활용해 얼굴 윤곽을 살리고 입술에 포인트를 주면 과하지 않은 세기말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①



CHANEL

BLUMA RINE

BOSS

DOLCE & GABBANA

DOLCE & GABBANA

GENNY

MIU MIU

MSGM

VERSACE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광주오, 레베코, 리모와, 마르니, 살바토레 페라가모, 파크 레인트 서울

**HOTEL SPLENDID**

어린 시절의 재발견, 가족의 개념과 연결되는 스토리를 토대로 휴고 콤테 (Hugo Comte)의 시각적 관능미를 엿볼 수 있는 이미지는 우리를 여름휴가를 보내기 이상적인 지중해로 데려간다. 대각선과 기하학적 구도에 채도를 강조한 연출로 1960~1970년대 영화 스타들을 연상시키는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이번 시즌 광고 캠페인의 이야기다. 빈티지와 컨템퍼러리를 오가는 영상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이코닉 제품인 바라 슈즈를 포함해 간치니 모티브 버클을 장식한 보헤미안 클로그, 우븐 소재의 물, 입체적인 질감의 니트웨어와 저지 소재의 의상, 스튜디오 백, 다양한 컬러의 버킷 백 등. 여름의 아름다움과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미의 본질을 담아낸 영상 속에서 그 빛을 발한다. 문의 살바토레 페라가모(www.ferragamo.com)



**COLOR ESSENTIAL**

대자연은 늘 가장 좋은 영감의 원천이 된다.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리모와의 에센셜 컬렉션에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컬러 역시 자연을 모티브로 한다. 세렝게티 평원과 킬리만자로산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다채로운 풍경을 자랑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영감을 얻었다. 시선을 끄는 과감한 레드 톤의 플라밍고와 익숙한 색감이 평화로운 이미지를 더해주는 아주려 컬러는 보는 것만으로도 강렬한 에너지와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여행의 서정을 더해준다.

문의 리모와(www.rimowa.com)

**어번 애프터는 티타임**

탁 트인 도시의 풍경과 달콤한 디저트를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면 파크 하얏트 서울의 '더 라운지'로 발길을 옮겨보자. 베이비핑크 빛의 만년설 딸기, 딸기 요거트 크림, 화이트 초콜릿 크런치를 더한 딸기 치즈 무스, 피스타치오 케이크, 딸기 타르트와 딸기 무스 등 3단 트레이를 채운 다채로운 딸기 디저트와 디저트 맛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커피와 스페셜 티 셀렉션, 웰컴 칵테일 한 잔을 함께 맛볼 수 있다. 4월 30일까지 매일 오후 12시부터 5시 30분 사이에 주문할 수 있으며 가격은 1인 기준 6만4천원이다. 문의 파크하얏트서울더라운지(02-2016-1205)



**FOR NEW SEASON**

마르니가 올 봄과 여름을 겨냥해 선보이는 트로피칼리아 마이크로 백은 라피아와 천연 가죽의 조화가 돋보이는 백. 톱 핸들과 떼어낼 수 있는 숄더 스트랩이 달려 있어 취향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며 패브릭 안감과 가죽 잠금장치로 실용성을 겸비했다. 앙증맞은 마이크로 사이즈로 브랜드 특유의 트렌디한 무드를 배가하고 앞면에 자수 로고를 수놓아 포인트를 더했다. 활용도 높은 브라운, 그린, 화이트 세 가지 컬러로 선보이며 맛있는 룩에 포인트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문의 마르니(02-3479-6013)

**수선화를 닮은 슈즈**

산뜻하고 발랄하며 어린 빛깔에 시선이 가는 계절.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발레리나의 이미지를 지닌 레페토가 새롭게 선보이는 뉴 시즌 컬러, 노란 수선화를 닮은 옐로 데포딜은 봄 스타일링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특히 화사한 옐로 데포딜 컬러를 입은 클래식한 발레리나 슈즈는 여성스러우면서도 생기 넘치고 발랄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으로 스킨 톤에도 잘 어울리며 스타일링 포인트로 활용하거나 다양하게 매치하기에 좋다.

문의 레페토(02-540-2065, www.repetto.kr)



**일상 속 휴식을 위한 오브제**

광주요가 선보이는 프리미엄 생활 자기 시리즈인 헤리티지 목단은 1970~1980년대에 제작한 광주요 1세대 제품에 '일상 속 휴식'이라는 콘셉트를 적용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 '황제의 꽃'이라 불리며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조선시대 대표 왕실 문양인 목단을 백자에 박지 기법으로 조각해 왕실 자기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현대 도자 위로 옮겨놓았다. 모든 작업 단계에 장인들의 섬세한 손길이 더해져 작품이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 다관, 숙우, 찻잔과 찻잔 받침으로 구성된 실용적이며 백, 현, 황 세 가지 컬러 중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문의 광주요(02-3442-2054, ekwangjuyo.com)

# 글로시 립의 귀환

일명 세기말 스타일이 힙한 트렌드로 떠오르며 반짝이는 립글로스 급부상 중이다.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MI KYUNG



설화수 퍼펙팅 쿠션 SPF50+/PA+++ 15gX2, 7만5천원



올 봄과 여름에는 1990년대의 어딘가 복잡하고 촌스러운 그때 그 패션을 추억하며 당사를 오마주한 메이크업이 대유행할 기세다. 자연스럽게 2000년대가 부활한 듯 반짝임을 더해주는 립글로스도 각광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는 반드시 마스크를 벗고 싶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진 듯 2022 S/S 컬렉션 쇼에서도 글로시하고 볼륨감을 살려주는 립 메이크업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블루마린 쇼에 선 모델들! 투명한 오일을 얇게 바른 듯 글로시한 입술에 어깨와 가슴 등 몸에 눈부실 정도로 바디 글리터를 잔뜩 얹어 반짝임을 한껏 강조했다. 질센더, 막스마라, N°21, 에르마노 셀비노 쇼의 모델들은 깨끗한 민낯 같은 피부에 색감을 최대한 배제하되 투명하고 은은하게 반짝이는 입술로 계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설렘을 전했다. 알베르타 페레티, 안나 수이, 코페르니 쇼에서는 톤 다운된 은은한 딸기 핑크나 애플리콧 계열 립글로스로 입술을 반짝반짝하게 표현했다. 보스와 러셀 애슬레틱 쇼에서는 반짝이는 입술을 연출해 글램 터치를 더욱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지암바티스타 발리 쇼에 선 모델들은 화사한 빛깔의 드레스를 입고 네온 핑크 계열의 글로시한 립스틱을 발라 룩에 포인트를



주었고, 돌체 앤 가바나와 펜디의 모델들은 코랄 계열 컬러를 가미해 강렬하고 볼드한 글로시 립을 연출했다.

매트한 립스틱 대신 립글로스나 매끄러운 립스틱이 주목받는 동시에 색이 짙은 립 라이너와 옅은 색 립스틱의 조합도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열기가 지속되면서 2000년대 초반, Y2K 스타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때 촌스럽다고 치부하던 1990년대 풀 메이크업이 봄을 일으키며 밋고 살았던 메이크업하는 재미를 상기시켜줄 듯하다. 1990년대 수많은 슈퍼모델이 바르던 브라운 립스틱이나 립 펜슬을 잘 활용하면 이번 시즌 트렌드세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진하게 우린 뱅쇼나 뱀파이어가 연상되는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부담스럽다면 립스틱은 물론 아이섀도까지 과감하게 포기해도 좋다. 가벼우면서도 깨끗한 피부에 블러셔로 광대뼈를 부드럽게 감싸고 하이라이터로 콧등과 이마의 입체감을 살리는 콘투어링을 통해 본연의 윤곽을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입술의 반짝임만으로 룩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타고난 듯 투명하게 빛나는 입술을 연출하고 싶다면 맑은 발색이 돋보이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스 누드 글로스를 활용하거나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처럼 질감이 촉촉한 제품을 선택하면 끈적이는 느낌은 줄이고 자연스러운 반짝임을 강조할 수 있다. 글로시한 립을 연출할 때는 플럼핑 효과가 있는 립 프라이머를 바른 뒤 컬러 립글로스를 바르고 입술 선만 티슈로 가볍게 눌러주면 끈적이는 느낌 없이 도톰한 입술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자. **LD**



헤라 브로우 디자이너 오토펜슬 #33 브라운 0.3g, 1만8천원

# Y2K AGAIN

마치 1990년대 말 압구정 로데오거리 풍경을 보듯,

화려한 메이크업과 과감한 스타일링이 다시 돌아왔다.

photographer ZOO YONG GYUN

editor CHOI HYANG JIN

## PINK PINK

지난 세기 말은 패션, 메이크업 할 것 없이 핑크가 장악했던 시기!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아주 얇게 바른 뒤, 헤라 새도 듀오 #06 라이커블을 눈두덩이에 넓게 펴 발라 핑크빛으로 물들인다.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프레시 누드 틴트 #138 베틀을 듬뿍 바르고, 같은 컬러를 불러서로 활용해 반짝이는 분홍빛 뺨을 완성한다.

## ALL THAT GLOW

오랫동안 종적을 감췄던 립글로스가 돌아왔다. 입술에 비닐막을 씌운 듯 반짝이는 글로우 립이 유행하는 것.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으로 세미매트 피부를 연출하고, 눈에는 헤라의 신제품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45 포에버 영을 가볍게 바른다.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404 37.2를 입술에 꼭 채워 바르고, 입술 선의 경계를 흐트러트린다. 마지막으로 눈두덩이와 입술에 헤라 센슈얼 프레스 리프 오일 #002 노 네임을 듬뿍 발라 글로시한 느낌을 강조한다.



## BROWN LIPS

과거 사진 속 여인들의 두툼한 갈색 입술이 다시 트렌디 컬러로 등극했다. 젠지가 열광하는 립 컬러는 보랏빛이 살짝 도는 짙은 브라운 컬러로 새로 출시된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499 로지 스웨이드가 바로 그 컬러! 입술 선을 벗어날 정도로 도톰하게 바르고, 눈에는 헤라 색도 듀오 #07 디센트와 #01 보니를 섞어 짙은 음영을 표현한다.



**DOUBLE LIPS**

영원히뷰티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립 라이너가 대활약을 보여줄  
시간. 실제 입술보다 두껍게 입술 선을  
그리고, 그 안을 다른 컬러로 채우는  
더블 립까지 유행할 조짐이다.  
헤라 섹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87  
섹슈얼 초콜릿으로 입술 선을 그리듯  
얇게 바르고, #404 37.2로 입술 안  
쪽을 채운 뒤 브라운과 스머징해  
세련된 더블 립을 완성한다.

MODEL: MARIE, MAKEUP: JAMIE YOON,  
KIM DONG HYUN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K JUNG



## 봄날의 햇빛을 좋아하세요?

따사로운 봄 햇살에 온몸을 내맡기고 싶지만,

강렬한 자외선은 이런 낭만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다. 치명적인 자외선에 맞서 피부를 보호해줄 든든한 자외선 차단제를 모았다.

photographer ZOO YONG GYUN(인물), JUNG J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 #1

### 봄나들이를 떠날 예정이라면 확실한 5중 차단 선크림

봄의 자외선 지수가 여름보다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 치명도를 따지자면 봄 자외선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겨울의 오랜 실내 생활로 피부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 가을과 비교해도 일조시간이 길고 습도가 낮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파장이 길어 노화의 주범이 되는 UVA는 한여름보다 5~6월에 더 강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낮 동안 야외에서 봄나들이를 즐길 예정이라면 확실한 차단 효과로 피부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선크림을 챙길 것. 헤라 UV프로텍터 멀티디펜스는 자외선은 물론 (초)미세먼지, 블루라이트 등 도시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광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욱 커지는 데모 네트워크 프로텍션 기술을 적용해 한낮의 강렬한 자외선 아래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헤라 UV프로텍터 멀티디펜스 SPF50+/PA++++ 자외선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블루라이트, 적외선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광 노화를 막아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데일리 안티에이징 선크림. 50ml, 4만원.



## #2

### 피부를 환하게 밝히고 싶다면 톤 업 선크림

겨우내 칙칙해진 피부 때문에 걱정하는 이들이 많을 터. 마스크만 믿고 자외선 차단제 바른기를 소홀히 해 피부색이 한층 어두워지고 잡티가 생겨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부 톤을 환하게 밝혀주는 톤 업 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끄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 피부색을 한 톤 환하게 만드는 자외선 차단제가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마치 백탁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얼굴이 허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는 제품을 잘 골라야 한다. 헤라 UV프로텍터 톤업은 건강한 빛이 나는 환한 피부로 연출할 수 있는 제품. 자외선과 외부 자극에 맞서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방어력을 높이며 색소침착이나 기미를 완화해주는 브라이팅 ning 효과도 있다.



헤라 UV프로텍터 톤업 SPF50+/PA++++ 5중 차단 효과로 자외선은 물론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선크림 하나로 자연스러운 피치 톤으로 밝혀준다. 50ml, 4만원.

### #3

#### 운동하러 간다면 땀과 물에 강한 선크림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국이니만큼, '마스크가 가려주니까', '어차피 땀이 나면 지워지니까' 하는 핑계로 자외선 차단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마스크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차단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완벽히 차단해주지 못하고, 하얀 마스크에 반사된 빛은 눈 주변과 광대뼈 부근을 자극해 주근깨나 기미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운동을 할 때에는 피부에 잘 밀착하고 땀과 물에 강한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꼭 바를 것.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은 더 꼼꼼히 발라야 한다. 헤라 선 메이트 레포트 프로 워터프루프는 피부에 필름 막을 형성해 물과 땀에 잘 지워지지 않고, 진정 효과가 있는 위치하젤 잎수를 더해 트러블 없이 피부를 편안하게 지켜준다. 가볍고 부드럽게 발려 피부가 갑갑하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



헤라 선 메이트 레포트 프로 워터프루프 SPF50+/PA++++  
워터프루프 기능을 더욱 강화한 선크림. 차단 기능은 강력한데도 클렌징 오일만으로 잘 지워져 편하다. 오랜 야외 활동으로 자극받아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70ml, 3만6천원.

### #4

#### 매일 쓰려면 블루 라이트도 차단하는 저자극 선크림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날이 많아졌을 터. 하지만 UVA는 창문은 물론 얇거나 밝은색 커튼도 쉽게 통과해 피부에 닿기 때문에 한낮에 실내에만 머무른다 할지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건 필수다. 문제는 또 있다. 자외선보다 피부에 더 깊이 침투해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블루 라이트다. 따라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거나 휴대폰을 자주 본다면 자외선 차단제는 더욱 필수. 매일 쓰는 제품이니만큼 프리메라의 스킨 릴리프 UV 프로텍터 EX처럼 피부 자극이나 눈이 시린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제품을 고르는 것도 효과적이다. 주로 앉아 있는 자리가 창가라면, 낮 동안 틈틈이 미스트를 뿌려 피부가 메마르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잊지 말 것.



프리메라 스킨 릴리프 UV 프로텍터 EX SPF50+/PA++++  
자외선과 블루 라이트를 고루 차단해주는 수분 베이스의 자외선 차단제. 피부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땀과 피지를 흡착해 산뜻하게 마무리되며, 1차 세안만으로도 쉽게 지워진다. 50ml, 3만원.





## #5

### 메이크업 효과까지 보고 싶다면 보정 선크림 + 쿠션

마스크를 끼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가벼운 외출을 할 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을 게 아니라, 하나만으로도 피부 톤과 결까지 보정해주는 다기능성 제품을 골라 꼼꼼히 발라야 한다. 단계를 줄이는 경우에도 파운데이션만 바르는 것은 금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파운데이션이라 할지라도 표기된 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두껍게 발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얇게 발라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파운데이션보다는 설화수 상백크림처럼 피부 보정 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편이 훨씬 낫다. 3중 안티폴루션 방어막으로 자외선과 초미세먼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자외선과 열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래도 파운데이션을 포기할 수 없다면 늘 갖고 다니며 수시로 덧바를 수 있는 쿠션 타입 제품을 선택할 것.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고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겸한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가 적당하다.



1. 설화수 상백크림 SPF50+/PA++++ 1호 크리미 글로우, 2호 밀키 톤업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준다. 맑은 운기와 광채를 더해주는 1호와 생기를 살려주는 산뜻한 텍스처의 2호로 출시했다. 각각 50ml, 8만5천원.

2.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SPF50+/PA+++  
안티에이징 세럼을 고스란히 담은 고영양 크리미 텍스처로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는 쿠션 컴팩트. 다이아몬드 파우더와 글로우 코팅 파우더를 함유해 고급스럽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완성해준다. 15g×2, 12만원.



MODEL: RA JI WON, MAKEUP: JAMIE YOON/KIM DONG HYUN/(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 클렌징은 필수

자외선 차단제는 땀과 피지, 먼지 등과 섞여 모공을 막고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세안에 신경을 기해야 한다. 특히 땀과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제품 가운데 일부는 1차 세안만으로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꼼꼼한 2중 클렌징이 필수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기승을 부린 날에는 자칫 세균이나 먼지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손을 쓰기보다는 도톰하고 자극 없는 질감의 클렌징 티슈로 가볍

게 노폐물과 메이크업, 자외선 차단제를 닦아낸 뒤 폼 클렌저로 한 번 더 씻는 것이 좋다. 피부가 민감한 편이 아니라면 일주일에 2~3회 모공 속까지 닦아내는 딥 클렌징을 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1b**



프리메라 모이스처 클렌징 티슈  
올리브 오일과 알로에베라 추출물이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닦아내고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준다. 60매(300g), 2만원.

# 春心滿開

새봄,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처럼 피부의 기운을 돋워줄  
에너지이징 뷰티 케어 아이템.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LEE MI KYUNG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120ml, 16만원.

#설화수No.1에센스  
#필수안티에이징부스터  
#피부장벽케어

##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수분크림을 바래 발라도 건조하고 각질 관리를 해도 피부가 푸석하다면?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의 기초 체력이 떨어져 쉽게 건조해지고 자극받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윤조에센스 퍼펙팅은 피부 장벽을 안과 밖에서 다각도로 케어해 더 힘 있게 빛나는 피부로 가꿔준다. 또한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 제품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피부를 준비시켜 준다.

피부 속 에너지를 깨우는 스킨케어의 첫 단계, 설화수 No.1 에센스인 윤조에센스로 시작해 보자.



## 설화수 상백크림 SPF50+/PA++++

자외선은 물론 도시의 유해 환경과 각종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방어하고 민감한 피부를 편안하게 지켜주는 선크림인 설화수 상백크림. 상백단™이 자외선과 열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외출 전 바르기엔 그만이다. 피부 톤을 고르고 밝게 보정하고 미백 효과를 발휘해 바를수록 피부가 밝고 화사해진다. 부드럽게 밀착되며 촉촉한 크림이 글로우를 운기나는 광채를 선사하고, 끈적이지 않고 산뜻한 밀키 톤업은 화사한 생기를 불어넣는다.

설화수 상백크림 SPF50+/PA++++, 50ml, 8만5천원.

#3중안티폴루션  
#저자극브라이트닝선크림  
#외출필수템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지친 환절기 피부의 흔적을 총체적으로 케어하여 더  
견고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렉서리 홈케어  
앰플. 차로부터 탄생한 생명력의 정수 앰솔루티™  
에멀전이 피부 속 깊은 곳부터 케어해 피부 본연의  
빛을 깨우고, 비타민C의 20배 항산화 효과를 가진  
EGCG리뉴얼 파우더가 피부에 입체적 탄력을  
만들어주는 집중 안티에이징 앰플 프로그램이다.  
정교하게 설계된 두 제형이 만나 완성된 앰플이  
피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빈틈없는 입체 리뉴얼  
안티에이징 효능으로 노화의 흔적을 빠르게 개선해  
다음 날, 피부로 느껴지는 압도적 변화를 선사한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7ml+0.6g)×4ea, 62만원.

#AbsoluTea™  
#입체리뉴얼안티에이징  
#렉서리홈케어앰플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1%. 30ml, 9만원.

#고함량순수레티놀  
#눈에보이는주름개선  
#41개수상경력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1%**

눈에 띄게 주름이 늘고 모공이 늘어졌다면 피부가 노화하고 있다는 증거. 레티놀은 콜라겐 생성과 피부 턴오버를 촉진해 주름과  
늘어진 모공을 개선하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성분이다.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1%는 큐브셀 시스템™으로 안정화한  
순수 레티놀 성분을 함유해 효과가 더욱 빠르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특징. 눈 밑이나 팔자 주름은 물론,  
노화로 인해 모공이나 피부 결이 고민인 부위에 바르면 매끈하고 탱탱하게 빛나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피부가 예민한 여성이라면 Y존의 환경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Y존은 다른 곳에  
비해 피부 장벽이 특히 더 얇고 투과성이  
높아 매우 민감하고 연약하며 외부 유해  
요소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쫀득한  
젤 타입인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는 pH  
4.5의 약산성 여성 청결제로 락토바실러스  
발효용해물인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해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 깨끗하게 세정하고  
냄새를 없애준다.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200ml, 2만7천원.

#Y존케어  
#약산성여성청결제  
#프로바이오틱스

## 바이탈뷰티 프로바이오 골드

몸속 장 건강 관리는 기본. 바이탈뷰티 프로바이오 골드는 엄선한 10가지 유산균과 부원료로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대사 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함유된 장 건강 관리 식품이다.  
깨끗한 제주 유기농 녹차 잎에서 유래한 유산균을 함유했으며, 4중으로 코팅해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이동하며 장벽에 붙는다.  
물에 사르르 녹는 스노우 파우더 형태로 맛있고 휴대하거나 먹기도 편하다. **VD**

바이탈뷰티 프로바이오 골드, 1g×60포, 5만5천원.

#녹차유래  
#100억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





## 봄을 위한 립 컬러 베스트 4

소프트 블러 펠름을 씌운 듯 보송보송 매끈하고 깃털처럼 가벼운 헤라의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그중 봄날에 어울리는 화사한 룩을 완성해줄 매혹적인 컬러 4가지를 소개한다.

### LOOK 1. GAM

실제 먹는 감에서 영감을 받은 톤 다운된 오렌지에 화사한 핑크를 약간 섞은 득한 오묘한 빛깔을 띠는 감 컬러는 쿨 톤 피부와 워밍 톤 피부에 모두 어울리는 컬러로 데일리 메이크업에 그만이다. 핑크 톤의 연한 아이 메이크업과 매치해 사랑스러운 핑크 무드를 뽐내보길.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SPF15/PA+, 35ml, 6만원.  
헤라 섀도 듀오. #04 피키, 4g, 3만8천원.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288 감, 5g, 3만7천원.

**FACE**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으로 결점 없이 완벽한 세미매트 피부를 완성한다.  
**EYES** 헤라 섀도 듀오 #04 피키 중 밝은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와 언더 래쉬 라인에 발라 눈 모양을 사랑스럽게 살린다.  
**LIPS**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288 감을 입술에 꼭 채워 발라 도톰한 입술을 연출한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 LOOK 2. SEXUAL CHOCOLATE

Y2K 열풍과 함께 갈색 립스틱이 다시 돌아왔다.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87 섹슈얼 초콜릿은 한때 대한민국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었을 마몽드 핑크 브라운 립스틱을 떠올리게 하는 컬러로 핑크빛이 감돌아 세련미가 더해진 것이 특징.



헤라 UV프로텍터 톤업 SPF50+/PA++++, 50ml, 4만원.  
헤라 섀도 듀오. #01 보니, 4g, 3만8천원.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87 섹슈얼 초콜릿, 5g, 3만7천원.

**FACE** 헤라 UV프로텍터 톤업을 얼굴에 얇게 펴 바른 뒤, 헤라 블랙쿠션을 발라 화사하고 결점 없이 완벽한 피부를 완성한다.  
**EYES** 헤라 섀도 듀오 #01 보니 중 진한 컬러를 언더 래쉬 라인에 도톰하게 발라 깊이감을 더한다. **LIPS**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87 섹슈얼 초콜릿을 입술 선까지 꼭 채워 발라 도톰한 입술을 완성한다. 이때 립 라이너로 입술 선을 강조해 볼륨감을 극대화해둔다!





### LOOK 3. FOREVER YOUNG

요한 윌 톤의 진달래가 연상되는 핫핑크 컬러인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45 포에버 영. 눈꼬리를 살짝 올려 그린 캐츠 아이 라인과 매치하면 깜찍한 인상을 연출할 수 있다.



헤라 블랙쿠션 SPF34/PA++, 15gX2, 6만원.  
헤라 섀도 듀오 #09 플로렌스, 4g, 3만8천원.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45 포에버 영, 5g, 3만7천원.

**FACE** 헤라 UV프로텍터 톤업을 피부에 얇게 펴 바른 뒤, 블랙쿠션을 발라 화사한 피부를 완성한다.  
**EYES** 헤라 섀도 듀오 #09 플로렌스 중 글리터를 가미한 컬러를 눈두덩이에 살짝 덧발라 반짝임을 더한다.  
**LIPS**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45 포에버 영을 입술에 가득 채워 바른 뒤 블러셔처럼 뺨에도 살짝 바른다.



### LOOK 4. ROSY SUEDE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499 로지 스웨이드는 보랏빛이 살짝 감도는 장미빛으로 이름 그대로 스웨이드처럼 부드럽게 표현되는 제품이다. 어릿한 피치 톤 아이 메이크업과 매치하면 보다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릴 수 있다.



헤라 UV프로텍터 톤업 SPF50+/PA++++, 50ml, 4만원.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404 37.2, 5g, 3만7천원.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499 로지 스웨이드, 5g, 3만7천원.

**FACE** 헤라 UV프로텍터 톤업을 얇게 펴 바른 뒤, 헤라 블랙쿠션을 발라 화사하고 완벽한 피부를 완성한다.  
**EYES**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404 37.2를 눈두덩이에 얇게 펴 발라 아이섀도 베이스로 활용하고, 광대뼈 윗부분에도 터치해 홍조를 연출한다.  
**LIPS**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499 로지 스웨이드를 입술에 가득 채워 바른다.

MODEL: SEO JI SOO, MAKEUP: LEE YOUN SUN, HAIR: CHANG HOON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 탄탄하고 또렷하게 눈매가 되살아나다

피곤해 부은 거라고 믿었던 축 처진 눈매가 알고 보니 노화로 탄력이 떨어진 거라면?

적송의 힘으로 탄탄하고 젊은 눈가로 되돌려야 할 시간.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 설화수 진설아이크림

①

### 피부 본연의 힘을 끌어올리는 Red Treasure™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적송에서 추출한 안티에이징 성분을 무려 66배 응축한 Red Treasure™가 피부의 노화 징후를 완화하고 피부 본연의 힘을 끌어올려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②

### 눈가에 힘을 더해주는 보령

설화수 진설아이크림에는 소나무의 힘을 품고 자라는 버섯인 보령 성분이 들어 있어 눈가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의 힘을 키워 눈매를 또렷하게 살려준다.

③

### 눈가를 감싸는 그물 텍스처

미세 유효 성분 입자가 그물망처럼 조밀하게 얹혀 있는 그물 텍스처로 이뤄져 바르자마자 주름을 일시적으로 감춰주고, 장기적으로 주름을 완화해 눈가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 추천 포인트

### POINT 1

적송 성분을 66배  
응축한 Red  
Treasure™의 힘

### POINT 2

눈가의 힘을  
길러주는 보령

### POINT 3

눈가를 힘 있게  
잡아주는  
그물망 텍스처

“잠들기 전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아침 눈매가 확연히 선명해진 느낌이 든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현민

“고농축 아이크림이지만 빠르게 흡수돼 끈적이지 않고 피부를 쫀득하게 잡아주는 느낌.”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아이크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편. 역시 진설아이크림이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설화수 진설아이크림  
눈가의 구조적인 노화 원인에  
작용해 굵은 주름은 감추고  
눈가를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27만원.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생크림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입술에 밀착해  
균일하고 매끈하게 스며들되는  
소프트 매트 립 제품.  
아이섀도와 블러셔로도  
활용할 수 있는 멀티유즈  
아이템이다. 5g, 3만7천원.

# 아름다운 컬러, 완벽한 벨벳 텍스처와 만나다

출시하자마자 아름다운 컬러와 매끄러운 소프트 매트 텍스처로 여심을 사로잡았던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가 더욱 완벽한 텍스처와 트렌디한 컬러로 진화해 돌아왔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추천 포인트

## POINT 1

균일하게 스며들되는  
보송한 피니쉬

## POINT 2

건조한 느낌 없이  
입술에 밀착하는  
에어리 텍스처

## POINT 3

피부 톤을 가지지 않는  
아름다운  
아홉 가지 컬러

##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①

### 소프트 블러 필터를 씌운 듯 보송한 벨벳 텍스처

포물선에 공기를 더해 도통하게 발리면서도 입술이 무겁거나 답답하지 않고 편안하며, 파우더를 미세하게 뿜아 여러 번 퍼바르지 않아도 균일하게 퍼져 매끈하고 아름다운 소프트 매트 립을 완성할 수 있다.

②

### 건조한 느낌 없이 오래 지속되는 편안함

여러 번의 공정을 거치며 에어 층과 워터 층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 건조하고 각질이 도드라지는 벨벳 제형의 단점을 줄여 하루 종일 입술이 편안하다.

③

### 트렌디한 9가지 컬러

부드럽고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텍스처 덕에 새롭게 출시된 9가지 컬러 모두 피부 톤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려 누구나 쉽게 트렌디한 룩을 완성할 수 있다.

“9종 모두 최근 사랑받는 컬러로 트렌디한 메이크업을 연출하기에 그만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아영

“입술이 찢어질 것 같아지는 다른 매트 립 제품과 달리 입술이 하루 종일 놀랍도록 편안하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덧바르지 않아도 균일하게 퍼지며 선명하게 발색되는 신기한 리퀴드 립 제품.”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상은

# 문제적 식습관으로 인한 건강 적신호를 해결하라

높은 체지방량, 콜레스테롤 수치 등 나쁜 식습관으로 인한 고질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10년 동안 100만 명이 선택한 메타그린 골드<sup>®</sup>의 힘을 빌려보자.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유기농 녹차추출물과 식이  
대사를 위한 비타민 미네랄  
6종이 함유된 프리미엄 녹차  
건강기능식품. 문제적인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및  
대사 건강에 도움을 준다.  
520mgx90정, 5만5천원



##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1

### 문제적인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 골드에는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농장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프리미엄 녹차추출물이 함유되어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매일 가볍고 원활한 대사 리듬을 완성한다.

2

### 불규칙한 식생활 속 식이 영양 대사를 위해 업선한 비타민 미네랄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 판토텐산, 비오틴, 크롬과 같은 비타민미네랄이 함유되었다. 또한 비타민 C, D가 균형 있게 함유되어 한국인의 식습관에 부족하기 쉬운 항산화와 뼈 건강 리듬까지 맞춰 준다.

3

### 속편한 프리미엄 정제 기술

정제를 만들 때 코팅제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인 이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를 배제하고, 특정 pH나 장에서 녹도록 설계한 특수 코팅 기술인 장용성 코팅을 적용해 부드럽게 넘어가고 속이 편하다.

## 추천 포인트

### POINT 1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POINT 2

식이, 영양 대사 맞춤 비타민 미네랄

### POINT 3

속편한 프리미엄 녹차 카테킨 정제

\*2012년 출시 이후 2021년 2월까지 메타그린 누적 구매 고객 수.

“목 넘김이 정말 편하고 확실하게 식사 후 섭취하면 속이 편해진 느낌이 든다.”

-아트 디렉터 김경남

“하루 한번, 식후 3정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식이 관리를 한 느낌이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미경

“유기농 녹차를 사용해 안심하고 섭취해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휘진



# 헤라 시그니아, 안티에이징의 한계를 뛰어넘다

수산화의 강인한 생명력과 헤라만의 식물 세포 연구기술을 담은 헤라 시그니아가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다.

한계를 뛰어넘은 안티에이징 기술로 완성한 2022년 버전의 시그니아를 만나보자.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 SURVEY RESULT

\*조사 기관: (주)뷰티링크파트너스 / 조사 대상: 30~55세 여성 40명 / 조사 기간: 2021년 10월 14일~20일 7일간 사용 후

### 헤라 시그니아 라인의 만족스러운 사용감\*

- 헤라 시그니아 스킨 리파이닝 워터**
  - 피부결이 매끄럽게 느껴진다 **97.5%**
  -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는 느낌이 없다 **100%**
- 헤라 시그니아 에센셜 밸런싱 에멀전**
  - 피부 땅김이 완화되고 윤택해진 느낌 **95%**
  - 피부가 촉촉한 느낌이 오래 유지되는 것 같다 **100%**
- 헤라 시그니아 유스 퍼밍 아이크림**
  - 눈가에 탄력이 차오르는 느낌이다 **95%**
  - 눈가의 피부 장벽이 강화된 느낌이다 **95%**



### 헤라 시그니아 라인의 놀라운 효과\*\*

**헤라 시그니아 코어 리프팅 세럼**  
피부의 놀린 자극 완화  
**+51%**  
모공 개선  
**+32%**  
피부가 늘어지는 증상 개선  
**+20.5%**  
입가 주름 개선  
**+15.4%**



**헤라 시그니아 루미네스스 래디언스 앰플**  
사용 직후 윤기 개선  
**+22.6%**  
24시간 윤기 지속  
**+13.1%**  
피부 투명도  
**+7.3%**

**헤라 시그니아 바이탈 리프팅 크림**  
입가 주름 개선  
**+12.6%**  
팔자 주름 개선  
**+13.9%**  
팔자 주름 탄력 개선  
**+13.4%**  
볼 탄력 개선  
**+15.5%**

### 식물세포 연구의 결정체

2015년 처음 출시된 헤라의 시그니아 라인인 당시 혁신적인 식물세포 기술을 담아 화제가 되었다. 식물의 줄기세포로 불리는 식물 캘러스 세포는 식물이 상처를 입으면 복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세포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생성되어 식물의 재생을 돕는다. 헤라는 수많은 식물 중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수산화에 주목해 첨단 식물세포 배양 기술로 나르시스 식물세포를 개발했고, 나르시스 식물세포가 염색체 끝에 붙어 DNA 손상을 막아주는 텔로미어를 보호해 노화 속도를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헤라 시그니아 라인은 나르시스 식물세포가 텔로미어를 타깃으로 해 젊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혁신적인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헤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간 이어온 식물세포 연구의 정수를 담은 2022년 버전의 '나르시스 스템-코드 액티브™'를 개발해 새로운 2세대 시그니아 라인을 내놓았다.

### 세포 그 이상의 연구로 안티에이징의 한계를 뛰어넘다

새로워진 헤라 시그니아의 핵심성분인 나르시스 스템-코드 액티브™는 약 3백만 개의 나르시스 식물세포에 새롭게 발견한 식물세포의 활성 성분인 '엑소좀'을 더한 2세대 시그니아의 핵심 성분. 엑소좀은 식물세포가 서로 주고받는 신호 전달 활성 성분으로 세포의 성장, 이동, 분화 등 다양한 세포 활성 효과의 열쇠를 전 물질이다. 엑소좀은 약 132nm 크기의 아주 미세한 입자로 추출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헤라는 무려 일곱 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쳐 엑소좀을 분리하고 농축해 시그니아 라인 안에 담았다. 시그니아 식물세포와 엑소좀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는 실로 놀랍다. 피부의 콜라겐에 관여하는 항노화 인자가 증가해 보다 근본적인 안티에이징이 가능한 것.

진일모한 헤라 시그니아 라인에는 이 놀라운 나르시스 스템-코드 액티브™가 담겨 있다. 그리고 워터, 에멀전, 세럼, 앰플, 크림, 아이크림 각각의 기능에 필요한 진귀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유효 성분을 더해 피부에 광채와 생기를 더하고 탄력을 눈에 띄게 강화한다. 기존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최첨단 식물 줄기세포의 효능을 체험하고 싶다면 헤라 시그니아 라인이 당신의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할 것이다.

\*\*조사 기관: (주)글로벌의학연구센터 / 조사 대상 및 기간  
- 세럼: 40~60대 여성 30명, 2021년 9월 6일~10월 5일 / - 앰플: 20~40대 여성 30명, 2021년 9월 13일~10월 13일  
- 크림: 40~60대 여성 30명, 2021년 9월 8일~10월 7일

## HERA SIGNIA LINE-UP

피부에 안티에이징을 넘어서는 개선 효과를 선사할 업그레이드된 헤라 시그니아 라인과 최적의 스킨케어 루틴을 소개한다

### 피부 바탕 완성



#### 헤라 시그니아 스킨 리파이닝 워터

나르시스 스템-코드 액티브™를 기본으로, 수선화의 꽃과 잎과 뿌리를 압착해 농축한 나르시스 워터와 골드, 3종의 AHA, 엔자임을 함유한 '골드 글로우 콤플렉스'가 완벽한 피부를 준비시켜주는 스킨부스터. 180ml, 9만5천원.



#### 헤라 시그니아 에센셜 밸런싱 에멀전

나르시스 스템-코드 액티브™와 나르시스 워터 외에 화이트 루핀에서 추출한 단백질과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당 단백질 성분으로 이뤄진 '피토프로틴'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는 에멀전. 150ml, 9만원.

### 집중 탄력 케어



#### 헤라 시그니아 코어 리프팅 세럼

나르시스 식물세포와 초미세 활성성분 엑소솜이 배합된 나르시스 스템-코드 액티브™가 피부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6종의 펩타이드 성분을 배합한 '멀티-펩타이드'가 피부를 탄탄하게 끌어올려주는 집중 탄력 강화 세럼. 50ml, 24만원.



#### 헤라 시그니아 바이탈 리프팅 크림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 피토템핑고신을 안정화한 보습 배리어 시스템인 '더마락서'를 적용해 피부를 촉촉하고 유연하게 유지하고, 새롭게 추가한 아르간 오일이 벨벳처럼 보드라운 탄력 보습막을 씌워주는 크림. 60ml, 30만원.

### 스페셜 케어



#### 헤라 시그니아 루미네스센스 래디언스 앰플

나르시스 식물세포에 피오니 추출물을 추가해 피부 속 당화 현상을 억제해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꿔주는 앰플. 이런 항당화 기능 외에도 비타민 B·C·E·F 4종 비타민의 항산화 기능으로 피부에 맑은 광채를 되돌려준다. 40ml, 14만5천원.



#### 헤라 시그니아 유스 퍼밍 아이크림

눈가에 부드럽게 녹아드는 멜팅 밤 텍스처로 눈가를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는 아이크림. 카페인 성분이 눈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식물의 생장 에너지를 응축한 피토플라센타 성분이 눈가에 생기를 더해준다. 30ml, 20만원.

### SIGNIA CARE ROUTINE

#### ROUTINE 1 SKIP CARE

매끈하고 맑게 빛나는 피부를 완성해주는 초스피드 케어 루틴

워터 + 앰플 + 에멀전

- 시간이 부족한 바쁜 일상에 쫓기다면
- 멀리 안티에이징 케어를 원하는 젊은 고객이라면

#### ROUTINE 2 BASIC CARE

촉촉하고 탱탱한 윤기 탄력 피부를 완성해주는 기초 케어 루틴

워터 + 앰플 + 에멀전 + 세럼

-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데일리 케어를 원한다면
- 초기 노화 관리를 원한다면

#### ROUTINE 3 FULL CARE

피부 속부터 탄력과 광채가 차오르는 젊은 피부로 바꿔주는 풀 케어 루틴

워터 + 앰플 + 에멀전 + 세럼 + 아이크림 + 크림

- 완벽한 럭셔리 케어를 원한다면
- 매일 밤 완벽한 스킨케어를 하고 싶다면

## 스킨케어 효과를 배가하는 마사지법

헤라 시그니아 라인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다음 마사지를 병행해보길.

### DAILY ROUTINE

제품의 흡수를 돕고 리프팅 효과를 높이는 데일리 마사지 방법.



턱뼈 안쪽에 양손 엄지를 대고 지그시 누르면서 페이스 라인을 따라 귀 쪽으로 끌어올린다.

입꼬리를 위로 끌어올린 뒤 입꼬리에 양손 엄지를 대고 5초 정도 지그시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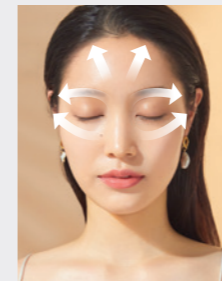
광대뼈 아래에 양손 엄지를 대고 누르면서 뼈를 밀어 올리듯 위로 당긴다.

검지와 중지로 눈썹머리를 지그시 누른 뒤, 마사지를 한다. 눈썹 전체를 양옆으로 밀며 미간 주름도 펴준다.

눈썹 앞머리에 양손 검지와 중지를 대고 이마를 끌어올린 뒤, 손가락 끝부분으로 두피를 지그시 눌러가며 마사지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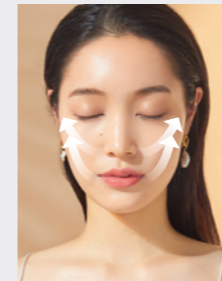
### SPECIAL ROUTINE

피로 해소와 리프팅에 도움을 주는 마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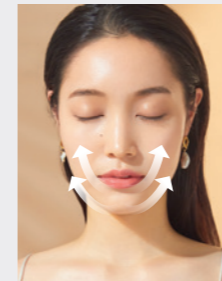
#### EYE

중지로 눈두덩이부터 관자놀이까지 부드럽게 문지른 뒤, 눈머리에서 눈꼬리 방향으로, 미간에서 이마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린다.



#### CHEEK

콧방울 옆에서 귀 밑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른 뒤, 콧방울 옆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입꼬리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쓸어 올린다.



#### CHIN

턱 중앙에서 목 양옆으로 부드럽게 문지른 뒤, 턱 중앙에서 귓볼 쪽으로, 아래턱 중앙에서 귀 밑으로 쓸어 올려 마무리한다.



MODEL: HONG JI YUN, MAKEUP: LEE YOUN SUN, BAEK CHANG HOON/AMOREPACIFIC MAKEUP PRO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 상큼한 나를 위한 비타민 C

몸도 기분도 환하게 밝히고 싶은 이맘때, 식탁 위에도  
화장대 위에도 꼭 올려놔야 할 필수 성분이다.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조금 피곤하다 싶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영양제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C 제제다. 가루 형태의 제품에서부터 물약이나 함량 높은 알약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나와 있어 부담 없이 사서 먹을 수 있다.

비타민 C가 이렇게 친근한 존재가 된 것은 다양한 효능 덕분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효능은 스트레스 해소와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 이 밖에도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해독 작용을 하며 철분 흡수를 돕고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 나이카 키토산 같은 동물성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 체중 감량 효과를 1.5배 이상 높여준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고, 감기 증상의 지속 기간을 줄이며, 혈당과 지질 수치도 조절해주는 고마운 성분이다. 그런 만큼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만성피로, 소화 장애를 비롯해 코피가 잦고 숨이 가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원숭이, 기니피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은 비타민 C를 포도당을 이용해 합성할 수 있지만 사람 역시 예외이기 때문에 꼭 식품으로 섭취해야 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감귤류, 레몬, 딸기, 토마토, 풋고추, 피망, 키위, 브로콜리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바쁜 현대사회에서 하루 세 끼를 골고루 챙겨 먹기는 결코 쉽지 않으므로 영양제를 구비해두고 매일 챙겨 먹는 것이 편하다. 성인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100mg이지만, 사실 얼마나 먹는 게 가장 좋은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간단하게 복용할 수 있는 함량이 낮은 제품부터 적정량의 1백~2백배에 달하는 양을 섭취하는 메가도스 요법까지, 전문가마다 권하는 적정량의 차이가 꽤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타민 C 부족 현상이 꽤 심각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 질병관리청의 2018 국민 건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타민 C 섭취량은 1~9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족하고, 특히 19~29세 여성은 권장 섭취량의 절반도 못 먹는다고 하니, 오늘부터라도 비타민 C 보조 체제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몸에 이로운 비타민 C는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밝히는 효능 또한 탁월하다. 색소침착을 막고 묵은 각질을 녹이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톤을 개선해 주기 때문이다.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며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모공을 줄이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피부의 방어력을 높여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이토피나 지루성피부염 등 습진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시중에 수많은 비타민 C 화장품이 나와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선택의 기준은 의외로 명확하다. 매우 불안정한 수용성 성분인 비타민 C는 공기와 물 같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24시간 내에 급격하게 효능을 잃고 변색되기 때문에, 얼마나 성분을 안정화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오펜은 20여 년에 걸친 비타민 연구의 결과로 특허받은 제형 기술인 Dual Vita C Formula™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고함량의 순수 비타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했다. 오랜 연구를 기반으로 최적의 함량을 찾아낸 건 물론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

물이 아이오펜 에이스 비타민 C30.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순수 비타민 C 30%를 기본 성분으로 여기에 증년 피부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B2, 식류 추출물과 페룰산을 더해 더욱 빠르고 확실해진 안티에이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효과를 더욱 높이는 비법도 있다. 비타민 C 화장품은 산성일 때 가장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바르기 전 약산성 토너로 피부를 정돈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제품을 바른 뒤 피부가 따갑거나 작열감 등이 느껴진다면 소량을 덜어 충분히 흡수시킨 뒤 다시 발라보고, 그래도 자극이 느껴지면 효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보습제와 섞어 바르는 것이 안전하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화장품은 자외선 차단제. 앞서 언급했듯이 비타민 C는 열과 빛에 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바를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 발라야 한다. AHA나 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이 든 제품과 함께 쓰면 피부에 더욱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①**

## TIP

아이오펜 에이스  
비타민 C30  
순수 비타민 C  
30%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성분들  
고루 담아 탄력  
있고 팽팽한 피부로  
가꿔주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앰플,  
23g, 8만원.



# 작지만 큰 집

성북동의 이담한 한옥.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꼭 필요한 것만 남기려는 이들의

'에센셜 라이프'를 품기에 충분하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mrspoetic\_design

오지창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패션 브랜드의 스토어 기획과 연출 업무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이후 미세스 포에틱을 설립해 공간 디자인, 스타일링, 비주얼 머천다이즈(VMD) 등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시 기획과 연출, 그리고 다양한 주거 상품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 성북동 한 골목에 자리한 집. 초인종을 누르고 조금 기다리면, 오랜 세월 중첩된 멋이 느껴지는 나무 대문을 집주인이 직접 나와 열어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색다른 환대에 가슴이 설레는 것도 잠시, 내부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만나는 중정과 거대한 유리창과 기와지붕의 절묘한 조화가 감탄을 자아낸다. 실내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생각보다 더 좁구나'. 실제로 이 집의 크기는 대지 면적이 20평(66㎡) 정도인데, 이 중 6평(20㎡)은 중정을 포함한 외부 공간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평수는 14평(46㎡) 남짓하다. 공간 디자이너 오지창과 남편, 그리고 두 사람의 아들이 머무는 이곳. 너무나없이 더 넓은 집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다소 좁아서 어찌면 불편할 수 있는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세 식구가 모두 집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도 커요. 아무런 연구가 없지만 꼭 살

고 싶었던 이 동네에 와서, 꽤 오랜 시간 살고 싶은 집을 찾아 헤맸고, 어렵게 찾아낸 이 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꾸몄죠. 카페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집에 있어요. 전 책을 읽고, 남편은 기타나 피아노를 치고, 아이는 장난감을 갖고 놀죠. 지금보다 더 넓은 집에 살 때에도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늘 셋이 웅기종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생활 방식을 고려해봤을 때, 이곳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한옥으로 이사한다고 할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주변의 우려와 달리, 사는 데 불편이 없다는 이들. 이들의 성향 외에 불필요한 가구나 잡동사니가 없다는 점도 이 집에서 사는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짐이 거의 없는 건 꼭 필요한 물건만 지니고 살고 싶은 오지창의 신념 때문. 사실 그가 처음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산 것은 아니다. 대학교 때는 여느 여대







생들처럼 그 역시 예쁜 가방이나 명품을 사 모았다. 브랜딩 작업을 위해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예쁜 물건을 탐내기도 했다.

"카페 오픈 소식이 들리면 득달같이 달려가 사진을 찍고, 예쁜 것을 사고...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니 어느 순간 허무하고 허탈하더라고요. 삶의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할까. 그 시기에 읽은 법정스님의 책 <무소유>도 큰 울림을 준 것 같아요. 많은 것이 넘치는 세상과 시대를 살면서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와 마음을 빼앗기기 싫었고, 제가 안을 수 있는 만큼 소중한 것들만으로 이루어진 생활을 하며 제 삶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규모를 줄이기로 마음먹었죠. 실제로 실천하기까지는 10여 년이 걸린 것 같아요.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꼭 필요한 것만으로 채운 에센셜 라이프를 위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의 목록 작성. 그러자 덜어내야 할 것들이 보이고, 자연스럽게 필요하지 불필요한지 따져가



며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게 되었다. 그렇게 짐을 줄이는 동시에, 스스로 다소 강제성을 띠기 위해 좁은 공간으로 이사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이 집이다.

남편 박승배 역시 이런 아내의 신념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 항해사로 일하며 오랜 승선 생활과 기숙사 생활을 통해 미니멀하고 에센셜한 삶을 살아온 그에게, 공간의 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공간의 크기보다는 그 속을 채우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집을 처음 봤을 때도 충분히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예스러운 모습을 간직했지만 관리가 잘되어 있지 않았던 이 집을 보고 '쫄꼬만 늙은 집'이라는 제법 정확한 감상을 남긴 아이 역시 훌륭히 적응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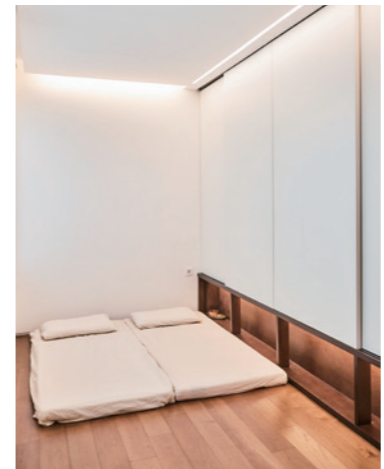
"사실 한옥을 고집해서 이 집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내 몸 편하자고 많은 흔적을 남기며 사는 것이 늘 불편했기 때문에, 흔적을 줄일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한 곳을 찾다가 운명처럼 이곳에 오게 됐죠. 이 동네에서 6년 정도 사는 동안 산책하면서, 아이를 등원시키면서, 출근하면서 자주 만났던 집이었어요. 수수하고 담백한 인상이 좋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인연이 닿았죠. 이후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한옥의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시간의 흔적을 품은 이 집의 고유한 매력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집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제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도 어긋나거든요."

깔끔하게 정돈한 서가래와 한지를 덧대 은은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중문, 그리고 곳곳에 놓인 세련된 소품들은 이곳을 더욱 아늑한 세 사람의 아지트로 만들어준다. 침대를 없애 밤이 되면 요를 깔고 잠자리에 드는 다소 번거로운 일상이지만, 누우면 보이는 하늘은 이런 수고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한다. 좁은 공간의 물



리적 한계가 있으니 소비에 더욱 신중하게 되지 만, 그러면서 살고 싶은 삶의 모습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다.

화려하고 요란한 것보다는 수수하지만 자신만의 기운을 지닌 존재에 매력을 느끼는 오지창 디자이너의 취향에 이 집은 정확하게 부합한다. 오랜 시간을 깨끗하게 버티며 자신의 모습을 지켜온 이 집에는 단단한 기운이 녹아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주요 구조재가 나무인 한옥은 사계절에 따라 나무가 수축과 팽창을 거듭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 언젠가는 점점 커가는 아이를 위한 방이나 부부가 사랑하는 '홈트'를 위한 공간,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명상할 수 있는 웰니스 룸도 갖고 싶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한옥은 세 사람의 삶을 더없이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세 식구의 단단한 애정이 가득한 한옥, 처음엔 즐겁게만 보이던 이 집이, 인터뷰가 끝날 무렵에는 넓디넓게 느껴졌다. **◆**



### 오지창이 말하는 짐 줄이는 방법

- 1. 수에 제한을 둘 것**  
늘 쓰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꼭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수를 제한할 것. 머그컵은 5개, 수저는 열 벌 하는 식으로 한계를 정해두고 좋아하는 것만 남기면 내 취향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 2. 물건이 필요한 순간에 맞게 정리할 것**  
은 가족이 동시에 손톱을 깎지 않는 한, 세탁기가 5대가 아닌 한, 보조 요리사가 네댓 명 되지 않는 한 손톱깎이, 세제, 주방 가위는 하나면 충분하다. 동시에 여러 개를 쓰지 않는 물건을 자꾸 사들이면 결국 기존에 쓰던 것을 버리게 되니 무턱대고 사지 말고 물건을 하나를 마지막까지 쓰는 즐거움도 꼭 느껴보길 바란다.
- 3. 내 집을 물류 창고로 만들지 말 것**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물건들이 차지하던 자리를 나와 내 가족에게 기꺼이 내어주자. 여백으로 비워둬도 좋다. 무엇이든 많이 쌓여 있으면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 4. 트렌디한 가구나 가전, 소품을 구입할 때는 의문을 품을 것**  
짐이 많으면 집도 커져야 한다. 꼭 필요한 물건인지, 내 삶의 질이 달라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점검해볼 것. 소품을 살 때에도 물건이 놓일 자리를 꼭 생각하고 구입해야 한다. 공간에는 여백이 필요하다. 시를 쓰듯, 노래를 부르듯, 중간중간 쉬어가는 여유를 두자.

photographer LEE SEOK YEONG  
contributing editor LIM SUA



### 틸 애프터

내추럴 와인 입문자라면 새하얀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연남동의 '틸 애프터'에 주목하자. 친절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부담 없이 내추럴 와인에 다가갈 수 있는 곳이다. 체크리스트에 선호하는 와인의 종류, 특성, 보디감, 당도, 산미 등을 적으면 취향에 맞는 와인을 추천해준다. 새우 맛을 진하게 낸 오일 파스타에 허브를 듬뿍 올린 '감베리', 얇은 카펠리니 면에 소바 육수를 얹고 스테이크와 와사비 매실 페스토를 올린 '오리엔탈 블렌드' 처럼 와인과 페어링하기 좋은 메뉴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9길 22-30 1층  
영업시간 화~금요일 17:00~21:00,  
토·일요일 14:00~21:00, 월요일 휴업  
문의 02-2088-3309

## 사랑하는 이와 함께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울의 매력적인 공간을 찾았다.

### 공드린

푸들 '루이'가 손님을 반기는 '공드린'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티 카페다. 티 브랜드 공드린에서 차를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곳으로, 매장 한편에 업차를 소분해 구매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차를 다양하게 변형한 메뉴도 준비되어 있는데, 히비스커스 홍차에 패션프루트 과육을 넣은 '하와이안 선셋'이나 딸기를 잔뜩 넣은 '딸기 밀크 티'가 특히 인기 있다. 시그니처 메뉴는 홍공식 밀크 티인 '동윤영'으로, 진하게 우려낸 차향과 부드러운 코코넛 맛이 입 안 가득 기분 좋게 퍼진다. 설탕과 합성색소를 넣지 않아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쿠키도 판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8-14  
영업시간 매일 12:00~21:30  
문의 02-514-9070



### 레스피레

카페 '레스피레'의 빨간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오래된 프랑스 저택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벽돌을 쌓아 만든 벽과 빈티지 가구, 시폰 커튼에 비치는 햇살까지, 일상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 좋다. 시그니처 메뉴는 '카라멜 크림'으로, 끈적한 거품을 얹은 달콤하고 고소한 커피다. 바닐라와 만다린 향이 조화로운 '파리 브렉퍼스트'나 복숭아와 살구의 향긋한 맛과 향이 살아 있는 '볼레로' 등 다양한 차도 준비되어 있다. 진한 버터 향과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프랑스 전통 크루아상을 선보이는데, 그중에서도 단짠 조합의 '솔트 카라멜 골드 크루아상'이나 수제 블루베리 잼과 크림치즈가 들어 있는 '블루베리 크루아상'을 맛보길 권한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3길 55-24  
영업시간 매일 12:00~22:00 문의 @\_\_respirer



### 먼치

서까래가 남아 있는 오래된 한옥에서 이탈리아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신용산역 인근의 레스토랑 '먼치'. 시그니처 호텔 레스토랑 '스테이(STAY)'에서 내공을 쌓은 셰프가 한식과 양식을 조화롭게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크림 파스타에 향정살과 파리고추를 올리고, 삼겹살구이에 당근 튀레를 곁들이는 식이다. 멍게 위에 청포도, 키위, 민트, 연어알을 올린 '멍게 물회'는 먹는 순간 알싸하고 상쾌한 기운이 입 안 가득 퍼지고, 화이트 와인과의 궁합이 좋다. 낮에는 통창으로 햇살이 들어 느긋하게 낮술을 즐기길 좋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87길 7-26 영업시간 수~월요일 11:30~15:00, 17:30~22:00, 화요일 휴업  
문의 @munch\_yongsan

### 이로

남영동에 위치한 디저트 바 '이로'. 문을 열고 보라색 계단을 오르는 순간 향긋한 버터 냄새가 반겨주는 곳이다. 2인용 식탁 2개와 기다란 바 테이블 하나만 놓여 있어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일본에서 요리를 공부한 셰프가 디저트를 만들어 '푸아그라 초코 시부스트'나 '연근 치킨 키쉬'처럼 창의적인 메뉴가 많은 것이 특징이고, 소물리에의 추천을 받아 디저트에 어울리는 술도 구비하고 있다. 초콜릿과 체리 크림을 곁들인 '푸아그라 초코 시부스트'는 포트 와인과 궁합이 좋다. 빨간 꽃잎을 올린 '생토노레 루즈'는 새콤달콤한 라즈베리와 고소한 헤이즐넛이 어우러지는 디저트로, 도수 높은 스위트 와인과의 궁합이 좋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63 2층  
영업시간 매일 15:00~23:00  
문의 070-7543-2527





# 아이크림, 진짜야?

피부가 연약한 눈가를 위해 꼭 챙겨 발라야 하는 아이크림. 대체로 값이 비싼 데다

페이스 크림만으로 충분하다, 비립종의 원인이다 등 이를 둘러싼 오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내가 가진 아이크림에 관한 생각, 과연 진실일까?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 NO 아이크림은 리치할수록 효과가 좋다?

유효 성분을 농축해 만드는 아이크림은 제형이 진득할수록 효과가 좋을 것이라 믿는 심리인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유분 함량이나 텍스처의 점성을 따지기보다는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분이 지나치게 많은 제품을 바르면 자칫 비립종이 생길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것. 만약 아이크림을 바를 때마다 눈가에 트러블이 생긴다면 수분 함량이 높은 가벼운 텍스처의 제품으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 NO 페이스 크림을 눈가에 발라도 된다?

페이스 크림이 보습과 영양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이크림은 피부가 얇고 건조한 눈가 관리를 위한 제품이기에 아이크림을 따로 바르는 것이 유리하다. 페이스 크림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 흡수되지 못해 비립종이 생기거나, 눈가에 바르기엔 건조해 주름 방지에 도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 설명서에 '눈가는 피해서 바르라'는 문구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평소 스킨케어할 때 민감한 눈가를 빼고 바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크림은 꼭 따로 챙겨 발라야 한다.

## NO 아이크림을 눈꺼풀에 바르면 눈이 부어 쌍꺼풀이 없어진다?

대부분의 아이크림은 눈 밑, 눈꺼풀, 광대뼈 위까지, 눈가의 건조한 피부에 넓게 펴 발라도 무방하다. 아이크림 중에는 눈꺼풀에 바르지 말라는 주의 사항을 밝힌 제품이 있는데, 이는 아이크림의 고보습 성분이 눈가 잔주름을 수분으로 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칫 부어 보이는 탓이다. 쌍꺼풀이 없어진다는 '루머'도 그래서 생겼을 터. 다만 안전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바르거나 과도하게 문지르며 발라 눈꺼풀이 자극을 받아 붓지 않게 주의하자.

## NO 눈가에 막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어 바르지 않는다?

눈가는 다른 부위에 비해 피부가 얇고 피지샘이 없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다. 아이 전용 제품 중 상당수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량의 보습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보호막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크림을 바른 후 눈을 많이 깜빡이거나 아이크림을 바르는 과정에서 자칫 이런 성분이 점막에 닿으면 막이 낀 듯 불편한 느낌

이 들 수 있으므로 크림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NO 비립종이 생기면 아이크림을 바르지 말아야 한다?

비립종은 모공에 쌓인 각질 세포나 노폐물이 뭉쳐 생긴 하얀색 혹은 노란색 각질 주머니다. 피지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주로 눈 주변에 생기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 비립종이 생겼다 하더라도 아이크림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생활 패턴부터 바꿔보자. 숙면, 충분한 휴식, 과일 섭취, 운동 등으로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도와주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외출할 때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챙겨 바르고, 눈가를 완벽하게 클렌징해서 노폐물이나 메이크업이 남아 있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크림은 바르는 양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바르는 양을 줄여보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유분 함량이 낮되 세라마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눈가를 촉촉하게 가꿔줄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

## NO 주름이 생기지 않아 아이크림을 바르지 않는다?

노화가 진행된 이후에 눈가 관리를 시작하면 이미 늦다. 가장 효과적인 안티에이징은 증상 개선이 아닌 예방. 주름이나 다크서클, 등이 없다 하더라도 건조한 눈가를 촉촉하게 만드는 아이크림으로 노화를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피부가 민감하다. 자극이 적은 제품을 고르고, 통상적으로 노화가 시작된다고 알려진 22~25세를 넘어서었다면 주름 개선 기능성을 인 증받은 제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YES 속눈썹 연장 기술을 하면 아이크림을 더 꼼꼼하게 발라야 한다?

무거운 속눈썹을 지탱하기 위해 눈가 근육이 평상시보다 더 긴장하고 쉽게 피곤해진다. 결과적으로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속눈썹 연장 기술을 했다면 아이크림을 더 꼼꼼히 바를 것. 속눈썹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클렌징에 소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폐물과 남은 메이크업이 피부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더 꼼꼼하게 클렌징해야 한다. **LD**

### TIP

#### 아이크림 제대로 바르는 방법

약지에 제품을 조금 덜어 가볍게 문지르거나 두드려 바른다. 눈가 근육 방향대로, 눈 아래에서부터 원을 그리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시키며 바를 것. 제형이 되직한 제품이라면 체온에 살짝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 바르고, 눈가가 많이 건조하다면 얇게 발라 흡수시킨 뒤 다시 덧바른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아이 리저브 크림 부드럽고 섬세한 아이 컴포트 포뮬라가 눈가에 편안하게 작용해 매끄럽고 탄력 있는 눈매를 선사하는 토탈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15ml, 29만원.



헤라시그니아 유스 퍼밍 아이크림 눈가에 영양을 공급하고 생기를 더해 눈매를 밝고 환하게 가꿔주는 아이크림. 눈가와 관자놀이에 탄력을 더해준다. 30ml, 20만원.



설화수 자음생아이크림 진세노믹스™의 속부터 차오르는 3중 탄력으로 57가지 눈가 주름 고민을 눈에 띄게 개선해 탄탄하고 평평한 눈가로 가꿔준다. 20ml, 16만원.



PHOTOGRAPHY: WWW.GETTYIMAGESBANK.COM(광고용 이미지 모델)



**아름다움은 자란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아름다움이  
 세대를 거쳐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항상은 이 시대 모든 어머니와 딸을  
 응원합니다.

MAKEUP: BAE HYE RANG, HAIR: CHO SO HEE, STYLING: LEE GYEONGWON

## 환상의 페어링

향긋한 홍차와 달콤한 티푸드처럼, '똑방길 홍차가게'를 운영하는 딸 장주연과

서울티클럽 회장으로 수많은 티 클래스를 주관하는 엄마 양경옥은 환상적인 페어링을 이룬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문을 연 지 3년이 조금 넘는 똑방길 홍차가게. 영국의 조그마한 찻집에 온 듯한 인테리어와 예쁜 달콤한 티푸드, 그리고 잘 우린 홍차를 마실 수 있는 이곳은 오픈과 동시에 여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핫플'로 등극했다.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주변의 티룸을 검색해서 찾아갔어요. 케이크가 맛있고, 티도 종류가 다양한 데다 완벽하게 우려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공간도 예뻐서 그곳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곤 했죠. 근데 정작 한국에는 맘에 드는 티룸이 거의 없더라고요. 차와 티푸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 이곳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그랬듯, 더 많은 사람들이 차와 공간을 여유롭게 즐기길 바라요." **\_장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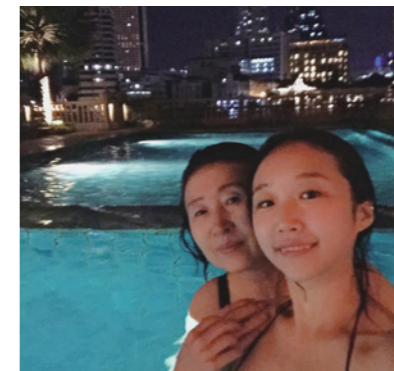
똑방길 홍차가게 대표 장주연은 사실 미술을 전공했다. 심지어 어릴 때에는 차를 그다지 즐기지 않았단다. 엄마 양경옥이 40대 후반부터 다도에 관심을 갖고 차를 즐겨 마시면서 딸에게도 함께하자고 권했지만, 어린아이에게 가만히 앉아서 차를 음미하는 그 시간은 사뭇 지겹고 힘겨웠다고 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차 향에 물든 장주연은 언젠가부터 커피를 마시는 친구들 틈에서 차를 마시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완벽한 티푸드와 티를 함께 즐길 때의 행복도 서서히 깨달게 됐다. 사실 장주연은 먹는 것에 늘 진심이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살 때 그는 틈틈이 모은 용돈으로 맛있는 한 끼를 즐겼고, 중학교 때 호텔 셰프인 친한 친구 엄마에게 배운 베이킹도 틈날 때마다 했다. 그러니 홍차와 티푸드에 빠진 그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프랑스로 가서 베이킹을 배우고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터. 이 결정을 엄마가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힘을 모아 '똑방길 홍차교육원'을 열었고, 엄마는 한국 다도와 홍차 문화 등 티 관련 강의를, 딸은 티푸드 개발과 홍차가게 운영을 맡고 있다.

"한국 다도를 처음 접했을 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얀 다포와 푸른 말차의 정갈한 색 대비, 그리고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아름다움에 매료됐죠. 이후 다도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차에 관한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찾아보다 다소 늦은 나이임에도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에 입학했어요. 공부하면서 말차는 왜 그렇게 색이 예쁘지, 오롱차는 왜 저런 모양인지 등을 알게 되며 차가 더 좋아졌어요. '어릴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입학도 문제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_양경옥**

50대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도 좋아하는 것을 배우다 보니 힘든 공부도 즐겁기만 했다는 엄마 양경옥. 식지 않는 열정으로 지금까지도 매일 수업을 진행하고 쉬는 날에도 새로운 티를 시음하고 시음기를 작성하는 엄마를 보며 딸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존경스럽다고 말한다. 엄마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딸이 수익보다 맛과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버거운 사업 일정에도 항상 최고로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 자랑스럽다고 한다.

차 애호가라는 점뿐 아니라 전반적인 취향이 거의 비슷한 두 사람. 첫손에 꼽는 스킨케어 습관도 일치한다.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클렌징을 빠뜨리지 않는 것. 집에 뜨거운 물이 잘 나오지 않던 시절에도 공공 언 손으로 비누 세안을 하고서야 잠들었다는 엄마처럼, 딸 역시 술을 마시거나 극도로 피곤한 날에도 무의식적으로 클렌징을 하고 잠든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비타민을 비롯한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많이 마시면 몸속 수분이 배출되는 홍차를 즐기는 만큼, 늘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차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며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녀. 이들의 건강한 웃음에는 향긋한 행복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다. **LD**



#진세노믹스™  
#3중탄력  
#5대눈가주름고민해결



LEUX RÉGÉNÉRANTE  
CRÈME CONTOUR DES  
YEUX RÉGENÉRANT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CREAM  
CRÈME CONTOUR DES  
YEUX RÉGÉNÉRANTE

# 생생한 제품 평가

설화수 자음생아이크림을 체험해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소감.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LEE MI KYUNG

## @\_\_venusgcg

예민한 눈가 관리는 설화수 자음생으로. 아이크림은 성분부터 더욱 꼼꼼하게 고르게 되죠. 자음생아이크림은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채워주는 인삼 농축 성분으로 탄력과 주름을 동시에 케어해줘요.



## @heejin\_an\_

바른 후 제품에 포함된 스파츨러로 마사지했더니 클링 효과도 있고 촉촉한 느낌이 아주 오래가요. 설화수 고유의 향이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더욱 좋고요. 눈가 탄력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 추천해요.



## @ganiworld\_

촉촉함을 넘어 쫘득함까지 느껴지는 영양 가득 설화수 자음생아이크림. 모두가 다 알고 좋아하는 크림이라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러브 러브 설화수!



## @raon\_happiness

촬영할 때마다 신경 쓰이는 눈가에는 든든하게 설화수 자음생아이크림 챙겨 바르기. 적당량을 덜어 눈 아래에 서너 군데 점을 찍듯 나눠 바르고 약지로 작은 원을 그리며 스며들게 하면 눈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져요.



## @sssohot

요즘 눈가 주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크림치즈처럼 쫘득한 제형으로 주름진 눈가를 힘있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 은은한 향도 참 좋아요.



## @gimerani.co.kr

서른두 살, 더 깊어가는 눈가 주름 고민. 이제 설화수로 탄력 케어 제대로 해볼게요.



## @nnvery

연휴 동안 그간 소홀했던 스킨케어에 신경 썼더니 피부가 탱탱해진 느낌이에요. 특히 아이크림을 설화수 자음생아이크림으로 바꿨더니 신경 쓰이던 눈가 주름도 조금 덜 보이는 듯!



## @ricordo.rim

텍스처도 촉촉하고 기증보다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패키지가 안티에이징에 대한 진심이 느껴져요. 바로면 하루 종일 눈가가 건조하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눈가가 부드러워요.



## @charm\_hye

꾸덕꾸덕하지 않아서 눈가에 부드럽게 퍼 발라지고 흡수가 잘돼 마음에 들어요. 부모님 선물로도 너무 좋은 아이크림이에요.



## @moonyung2

나이 앞자리가 바뀌니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역시 얼굴 주름. 특히 염려되는 눈가와 입가는 설화수 자음생아이크림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얼마랑 같이 쓰기 시작했는데, 바르고 잔 다음 날 다크서클이 확실히 없어졌어요!

### ◀ 설화수 자음생아이크림.

20ml, 16만원. 설화수의 독보적인 진세노믹스™의 속부터 차오르는 3중 탄력으로 5가지 눈가 주름 고민을 눈에 띄게 개선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탄탄하고 팽팽한 눈가로 바꿔주는 아이크림.



1



2



3

1. 헤라 시그니아 코어 리프팅 세럼 나르시스 식물세포와 초미세 활성 성분 엑소좀을 배합한 나르시스 스템-코드 액티브가 탄탄하고 빛나는 피부로 가꿔주는 안티에이징 라인. 50ml, 24만원
2. 헤라 선메이트 레포츠 2종 세트 땀과 물에 강한 워터-스웨트프루프 기능의 아웃도어 및 스포츠용 선크림. 70ml×2+UV프로텍터 멀티디펜스 40ml, 7만2천원.
3.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피부 장벽을 다각도로 케어해 더 힘 있게 빛나는 피부로 가꿔주는 안티에이징 에센스. 120ml, 16만원.
4.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입술이 건조해지거나 각질이 도드라지는 일 없이 입술에 완벽히 밀착하는 소프트 매트 텍스처의 새로운 립 제품. 5g, 3만7천원.
5. 헤라 UV프로텍터 멀티디펜스 2종 세트 강력한 5중 차단으로 피부를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완벽한 피부로 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촉한 데일리 선크림. 50ml×2+40ml, 8만원.

##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간간하게 고른 3월의 강추템.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CHOI HYANG JIN



4



5



# HERA

## SIGNIA

CORE LIFTING SERUM



SIGNIA  
CORE LIFTING  
SERUM